

최근 經濟動向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一. 주요 업종별동향

◇ 자동차

97상반기중 자동차 생산은 년초 노동법 파문에 따른 생산차질과 재고누적 등으로 인한 생산조정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6% 증가한 1,421천대에 그쳤다. 內需는 자동차업체의 판매노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4.5% 감소한 725천대에 머물렀다. 車種別로 보면 승용차의 내수는 대형 및 다목적형 승용차를 제외한 전차종의 판매가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한 94천대에 머물렀으나 商用車의 내수는 트럭의 판매부진에도 불구하고 소형 버스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35천대에 달하였다.

수출부문은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으로 전년동월 대비 40.3% 증가한 149천대에 이르러 5월에 이어 월중 최고실적을 달성하였다. 상반기 실적으로도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639천대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최대수출시장인 서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이 영국과 독일에서의 수입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3.3% 증가한 47천대에 달하였으며,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도 대미수출의 호조로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 났다. 그밖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남미 지역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민차공급, 호주로의 티뷰론 수출호조와 대브라질 버스수출 호조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국내 자동차시장 수입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어 지고 있다. 지난 1995년 체결된 한미간 자동차시장 개방 양해각서의 改正과 관련하여 수입관세의 추가적 인하, 자동차세 등 각종 과세기준의 변경 및 자기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동 차 (台, %)

	1996. 6월			1997. 6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180,806	△27.6	△12.2	251,405	1.2	39.1	1,420,527	3.6
• 出 荷	241,436	△3.9	10.7	278,167	0.0	15.2	1,363,491	△1.9
(內 需)	135,106	△10.4	10.6	128,992	△5.8	△4.5	724,883	△11.3
(輸 出) ¹⁾	106,330	5.9	10.8	149,175	5.6	40.3	638,608	11.6

註1) 자동차공업협회자료로 관세청 수출통계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

◇ 전기·전자

6월중 전자산업 수출은 가전제품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자와 전자부품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3,584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가전용전자의 수출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수출이 1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영상기기의 수출이 50% 이상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9.6% 감소한 488백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산업용전자는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4.4% 증가한 7억7천7백만불을 기록하였다. 전자부품의 수출도 반도체의 수출회복과 CRT, LCD, 일반부품의 전반적인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4.2% 증가한 2,326백만달러를 시현하였다.

반도체수출은 컴퓨터부문의 고성능화에 따른 수요증가와 주력상품인 16MD램의 가격 안정에 힘입어 전월대비 8.8% 증가한 1,623백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지난해의 수출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26.9%에 이르렀다.

상반기중 산업용전자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한 4,476백만달러에 이르렀으나, 가정용전자의 수출이 같은 기간중 15% 감소한 3,337백만달러, 전자부품이 같은 기간중 12.7% 감소한 11,918백만달러에 머물러 전자산업의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한 19,731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등 PCS 3社가 오는 10월 1일 서비스개통을 앞두고 8월 1일 서울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며 기존 개인휴대폰 업체와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산업진흥회와 전자 3社가 200여개의 부품업체와 공동으로 컬러TV등 9개 제품, 46개 부품에 대한 단체표준규격을 마련하여 관련업체에 약 300억원의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철 강

6월중 생산설비가 대폭 늘어난 전기로 제

강의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한 1,450천M/T에 이르고 轉爐제강도 지속적인 생산효율화를 통하여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2,013천M/T을 생산함에 따라 전체 祖鋼생산은 3,463천M/T으로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年初에는 경기부진으로 조강생산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4분기 들어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산량이 늘어나 97년 상반기중 조강생산은 20,659천M/T으로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마철의 비수기에 대비한 재고감축에 따라 板林類의 내수뿐만 아니라 그간 호조를 보이던 條鋼類의 내수마저 악화되어 6월중 철강재내수는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한 3,018천M/T에 지나지 않았다. 금년 들어 내수시황이 계속 부진하여 상반기중 철강재내수도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한 18,286천M/T으로 위축되었다.

국제경기의 회복과 엔高 등으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경기침체의 지속과 업계의 재고조정 노력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6월중에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한 5억8천3백만달러에 이른 반면, 輸入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한 5억7천5백만달러에 머물러 97년중 두번째로 8백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신기술 개발이 활발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천제철은 수산화나트륨과 인산나트륨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전기호제강의 분진 속에 함유된 有害중금속을 結晶化시킴으로써 매립과 매수를 한층 용이하게 한 粉塵安定化처리공장을 준공하였다.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6. 3월			1997. 3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221	△3.2	7.5	3,463	△3.9	7.5	20,659	5.4
輸 出	476	△6.9	△46.6	583	2.8	22.5	3,267	9.2

◇ 일반기계

6월중 일반기계 수출은 업계의 수출확대노력에 힘입어 그 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낮은 증가세를 보였고, 수입은 최근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속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무역수지적자 또한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한 885백만달러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부문별 수출은 금속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등에 있어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31.2%, 10.7% 감소하였으나 화학기계, 농기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건설광산기계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6.8~88.6% 증가하는데 힘입어 전체로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한 66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금년 상반기중 수출은 2/4분기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는데 그쳐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부문별 수입은 건설광산기계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機種에서 감소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1,550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상반기중 수입 역시 2/4분기 들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2.0%의 큰 폭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중 무역수지적자 또한 5,129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1% 감소하였다.

국내 공작기계업계의 상반기중 受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한보, 진로, 기아산업 등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이 더욱 경색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 정도 감소한 2,40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부진은 금형업계를 제외한 주요업체들이 경기부진으로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아 가장 시장규모가 큰 CNC 선반의 판매가 크게 위축되었고, 수요처의不渡위험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제품 出市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 신규 수요 창출요인도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석유화학

6월중 국내 석유화학산업 동향을 보면, 4~5월에 집중된 주요 에틸렌프린트의 정기補修가 마무리되고 최근 완공된 설비의 추가 가동으로 인해 생산과 출하가 모두 활기를 띄웠다.

생산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 등 3大 유도품의 평균 가동률이 82%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의 잇따른 新·增設과 기초원료 설비의 정기보수 완료로 전월대비 11.1%, 전년동월대비 44.4%의 급증세를 보였다.

폴리에스터는 수출경기의 회복세 지속으로 TPA를 중심으로 한 합섬원료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1.2%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수출은 합섬원료의 경우, 내수호조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수출이 내수부진 및 전년('96년)중의 대폭적인 설비확충에 따른 여유물량 증가로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21.3%의 급증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전년도와 금년중의 잇따른 설비확충에 따른 생산증가와 수출호조로 금년 상반기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양호한 업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

산과 내수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및 16% 정도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수출도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8%의 급증세를 나타내었으며, 수출가격이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여 수출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21.6%의 신장세를 보였다.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국내가격은 동남아 주요국가의 설비 정기보수 완료와 계절적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6월 이후 합성원료를 제외한 全品目에 걸쳐 약세를 나타내었다.

7월 초순 동남아 現物市場 기준으로 에틸렌가격은 6월에 비해 톤당 70~80달러 떨어졌으며,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6월 거래가격도 대체로 전월에 비해 톤당 20~50달러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하락세는 7월 초순에도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 (千M/T, %)

	1996. 6월			1997. 6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662	△9.9	△16.1	953	11.1	44.0	5,635	16.6
• 出 荷	800	7.4	3.1	970	5.7	21.3	5,578	18.2
(內 需)	514	△4.8	△7.2	623	8.9	21.2	3,593	16.4
(輸 出)	286	39.5	25.9	347	0.3	21.3	1,985	21.6

◇ 섬유

6월중 국내 섬유산업은 화섬직물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섬유사와 편직물류의 수출 호조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6월중 섬유수출은 증가폭이 금년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년동월에 비하여 6.2% 증가한 1,677백만달러를 나타냄에 따라 상반기까지의 섬유수출도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9,06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그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여왔던 섬유원사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86백만달러로 섬유사의 수출

은 Polyester F사와 Nylon F사의 직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8% 증가한 162백만달러로 나타났다. 직물류는 최대 수출종목인 Polyester 직물의 지속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직물류의 수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한 963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섬유류 제품류는 최근 미국, 유럽지역의 의류 수출경기 호조로 5월이후 부터 수출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466백만달러를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지역에 대한 섬유사, 직물류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일본, 홍콩, UAE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섬유원사, 섬유사 등 원료 및 중간재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한 391백만달러로 축소되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은 전년동기 수준인 2,474백만달러에 그쳤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섬유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기술기반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현재 국제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섬유업체에 정부 지원 120억원, 민간부담 109억원 등, 총 229억원을 투입하여 産·學·研협동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동 계획은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없는 중소 섬유업체를 위한 개방실험실, 섬유시험용 파일럿 플랜트 등을 공동연구단지 내에 설치하여 염색, 봉제, 디자인 등 취약한 기술분야에 대해 집중지원과 생산성향상, 신상품개발, 시제품 생산, 공동애로기술 해결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비금속광물

6월중 시멘트 내수는 상반기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한 5,860천 M/T을 기록하였다.

生産은 내수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수급불안현상이 없고 5월말 재고가 1,000천M/T을 넘어감에 따라 몇몇 업체가 가동률조정과 하반기를 대비한 조기 공장改·補修를 시작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378천M/T으로 전년동월대비 44.0% 증가하였다.

생산이 감소하고 내수가 증가함에 따라 6월말 현재 생산업체 보유재고는 전월보다 162천M/T 감소한 959천M/T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했던 할당관세율을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즉, 상반기에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였는데, 하반기에도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할당관세율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쌍용양회는 페타이어를 소성로의 연료 및 원료로 활용·가동중에 있다.

쌍용양회가 환경부로 부터 15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영월공장에 갖춘 이 소성로를 통하여 페타이어의 철과 황성분은 시멘트 원료로, 고무와 카본블랙은 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으며, 연간 2백만개에 달하는 페타이어가

재활용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해 운

6월중 乾貨物市況은 월중반까지 공급과잉에 따른 파나맥스船型の 운임하락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월말경 북미-일본항로의 곡물운임의 강세 및 선진국의 철강생산 증가에 따른 케이프사이즈 船型の 운임증가에 힘입어 乾貨物綜合指數(MRI)가 前月과 보합수준인 241.3을 유지하였다.

상반기중 건화물시황은 쏠船型에서 공급과잉이 지속된데라 미국 및 남미지역의 홍수로 인한 주요 항만에서의 체선현상 심화(深化) 등으로 파나맥스船型的 운임이 크게 하락하여 6월말 현재 건화물종합지수는 年初대비 6.1%나 떨어졌다.

그러나 탱커운임지수(WS)는 극동지역 정유사들이 재고비축을 위한 油類수입을再開한데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석유회사들이 노후선박의 용선을 기피하여 新造備船에 대한 운임이 상승함에 따라 前月の 66.4에서 70.8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탱커시황은 유가하락에 따른 수송물동량 증가, 노후선박 해체축진에 따른 船腹需給改善으로 탱커운임지수가 4월을 제외하고는 큰 기복없이 60이상의 호조를 보였으며 6월말 현재 年初대비 16.4% 상승하였다.

상반기중 세계해운업계의 老朽벌크船 해체량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61척 386만DWT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복과잉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벌크캐리어의 해체는 특히 노후선박비율이 높은 5만DWT 이하의 船型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市況이 호전되고 있는 케이프사이즈船型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시멘트 (千M/T, %)

	1996. 6월		1997. 6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5,266	△1.6	21	5,381	△4.0	2.2	28,265	6.7
· 出 荷	5,211	△12.1	△3.9	5,899	2.5	13.2	29,442	6.1
(內 需)	5,165	△12.1	3.3	5,860	3.0	13.5	29,099	6.6
(輸 出)	46	△9.8	△42.5	39	△43.5	△15.2	343	△21.7

벌크캐리어의 해체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건화물시황의 부진과 新造船 引渡量의 증가에 따른 선복과잉 확대 및 各國의 노후선 규제 움직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조 선(造船)

6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탱커 및 대형선의 수주호황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8배 증가한 34척 1,672천G/T을 기록함에 따라 상반기중 총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172.6% 증가한 5,277천G/T을 나타내었다.

6월까지 수주실적을 船種別로 보면, 탱커(정유운반선 포함)와 벌크캐리어의 수주가 각각 3,672천G/T, 1,011천G/T으로 나타나 이미 지난해 수주량을 웃도는 호조를 보였으나 컨테이너船의 경우 215천G/T으로서 수주가 부진한 편이 었다.

6월중 建造量은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시리즈船의 건조로 큰 폭의 생산증가를 보였던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43.3% 감소한 16척 613천G/T을 기록하였으며, 상반기중 총건조실적도 76척 3,242천G/T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16.7%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수주殘量은 상반기중 수주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업계 사상 최고수준인 294척 15,127천G/T을 기록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던 新造船價가 최근 들어 일부 船種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채산성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탱커의 경우 25만DWT급 VLCC의 신조선가가 지난 5월 79백만달러까지 내려갔으나 최근 들어 82백만달러까지 올라 3월 49백만달러를 기록하였던 수에즈막스급 탱커의 신조선價도 50천만달러로 다시 회복하였다.

또한 벌크캐리어도 케이프사이즈 船型의

신조선가가 4~5월중 39백만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에는 41백만달러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27백만달러까지 하락했던 파나막스급 船型도 최근 28백만달러로 회복되었다.

조 선 (千G/T, %)

	1996. 6월			1997. 6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 注	440	54.4	△56.0	1,672	130.9	280.1	5,277	172.6
· 建 造	1,082	25.5	107.4	613	4.4	△43.3	3,242	△16.7
· 受注殘量	11,909	△8.0	△11.2	15,127	7.6	27.0	15,127	27.0

二. 대외거래

◇ 수 출

7월중 수출은 지난 5월에 증가세로 돌아선 반도체 수출이 15.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6% 증가한데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반도체 이외의 수출도 103.5억달러로 17.7% 증가함에 따라 전체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9.7% 증가한 118.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상반기중 세부 품목별수출을 보면, 경공업제품(3.2%)은 섬유사, 종이류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의류, 신발류, 등의 감소세가 지속된데다 타이어 튜브 등도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중화학공업제품(△2.4%)은 선박, 전자제품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화공품, 금속제품 등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감소세가 둔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상반기중 전체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한 652.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7월중 수출신용장(L/C) 未到는 금속제품, 석유제품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 철강 등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한 59.1억달러에 머물렀다.

◇ 수입

7월중 수입은 5월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여 자본재 수입이 감소한데다 원유 등 원자재수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승용차, 신발류 등 소비재 수입이 감소세를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수입은 전년동월의 127.3억달러에 비해 0.6% 감소한 26.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상반기중 세부 품목별 수입을 보면 식료 및 소비재는 세계곡물가격 하락과 재고조정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곡물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소비재 수입도 둔화되었다.

원자재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제품, 철강재 등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자본재는 정보통신분야의 투자확대로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 둔화로 기계류의 수입이 감소한데다 수송장비 수입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전체수입은 국내경기 침체로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재 및 원자재 수입도 크게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743억4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국제수지

우리나라의 97상반기중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및 무역외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의 △98.2억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102.8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무역수지는 △60.6억달러로서 수출이 화공품, 금속제품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 보다 소폭 증가한데다 輸入이 국내경기 침체로 자본재를 비롯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적자폭이 전년동기의 △56.4억달러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品 目 別 輸 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6		96. 1~6월		97. 5p		97. 6p		97. 1~6p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食料 및 消費財	2.5	1.5	15.2	8.6	2.4	△13.7	2.4	△6.6	14.0	△7.6
原料 및 燃料	4.3	24.8	27.0	20.8	6.7	30.2	5.8	34.9	39.3	45.5
輕工業製品	29.6	8.6	159.0	9.9	30.4	2.2	31.4	6.1	164.1	3.2
纖維類	15.1	△5.4	83.3	△3.8	16.0	3.1	16.0	5.5	86.4	3.7
신발類	0.7	△34.1	4.5	△28.2	0.5	△35.8	0.6	△20.0	3.4	△26.0
旅行用具	0.5	△24.6	2.9	△18.1	0.4	△20.7	0.4	△21.5	2.3	△21.3
重化學工業製品	76.6	△3.4	445.5	11.0	78.2	4.6	83.3	8.9	434.7	△2.4
化工品	5.2	△14.8	34.6	△5.8	7.1	35.7	7.4	41.0	40.6	17.4
金屬製品	5.9	△48.3	36.0	△32.0	7.0	11.4	7.1	21.2	41.4	15.0
機械類	13.0	8.1	73.6	17.5	13.7	7.1	13.8	6.8	79.7	8.3
電子製品	19.3	△13.0	126.2	10.4	22.1	13.8	23.8	23.7	122.6	△2.8
自動車	9.7	13.2	53.2	23.4	12.3	30.4	11.5	19.1	57.7	8.4
船舶	9.6	98.5	35.9	69.2	4.5	△43.2	7.8	△18.1	25.6	△28.9
統 計	113.0	0.5	646.7	11.0	117.6	4.7	123.0	8.8	652.0	0.8

品 目 別 輸 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6		96. 1~6		97. 5		97. 6p		97. 1~3p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食料 및 消費財	14.4	22.6	80.6	21.8	13.0	△8.7	13.3	△7.7	80.4	△0.2
穀 物	3.4	66.2	16.4	40.7	2.2	△17.9	2.7	△19.5	13.2	△19.0
直接消費財	4.1	9.8	23.3	16.0	4.2	△1.3	4.0	△2.7	24.0	2.9
耐 久 財	4.7	10.5	26.8	11.4	4.4	△11.7	4.4	△6.7	28.1	4.7
非 耐 久 財	2.2	28.9	14.1	36.2	2.3	△4.6	2.2	△1.4	15.1	7.2
原料 및 燃料	58.8	△1.6	372.7	14.0	62.6	△2.9	61.2	4.1	389.5	4.5
原 油	9.4	△17.3	62.3	10.4	12.0	19.0	12.8	35.4	90.4	45.1
輕工業原料	4.5	△26.9	31.1	△5.3	4.7	△13.9	4.6	2.5	28.1	△9.8
化學製品	7.4	△0.9	43.6	5.4	7.5	△4.9	7.4	0.1	44.2	1.3
鐵 鋼 材	5.6	△2.5	36.6	32.2	5.1	△20.3	4.7	△17.0	28.3	△22.5
資 本 財	44.1	△5.9	274.2	5.6	46.8	△2.7	48.0	8.9	273.5	△0.3
機 械 類	18.9	△6.9	118.2	2.8	19.1	△8.9	18.4	△2.4	105.2	△11.0
電氣·電子	17.0	△0.2	102.3	10.6	19.9	13.1	21.1	24.5	116.7	14.0
輸 送 裝 備	3.3	△23.7	21.5	0.6	2.1	△45.7	3.2	△1.8	18.3	△15.1
內 需 用	76.6	0.3	485.9	12.0	80.2	△4.2	79.8	4.1	494.0	1.7
輸 出 用	40.6	△3.1	241.6	10.3	42.3	△2.0	42.7	5.1	249.4	3.2
總 計	117.3	△0.9	727.5	11.5	122.4	△3.4	122.5	4.5	743.4	2.2

무역외수지는 △39.0억달러로서 투자수익 및 운항경비 등의 지급이 크게 늘어나 전년동기의 △37.6억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移轉收支는 △3.3억달러로서 전년동기의 △4.2억달러보다 적자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한편, 상반기중 자본수지는 114.9억달러의 導入超過를 보여 순도입규모가 전년동기의 121.3억달러보다 줄어들었다. 자본도입은 개발기관측의 단기차입 및 외화증권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나, 무역관련 신용에 의한 도입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동기의 165.5억달러보다 감소한 142.4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본流出은 민간부문의 해외예치금 및 무역관련 신용공여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의

44.2억달러보다 감소한 27.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중 종합지수는 경상수지의 증가 및 자본수지의 감소로 12.3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어 전년동기의 12.6억달러 흑자에서 적자로의 전환을 보였다.

국 제 수 지

(억달러)

	96. 6	96.1~6	97. 5	97. 6p	97.1~6p
經 常 收 支	△13.1	△98.2	△9.0	△3.6	△102.8
貿 易	△6.6	△56.4	△2.3	△2.6	△60.6
貿 易 外	△5.7	△37.6	△6.4	△6.0	△39.0
移 轉	△0.8	△4.2	△0.4	△0.3	△3.3
長期資本收支	11.6	57.3	17.8	21.6	75.2
短期資本收支	14.5	64.0	9.4	5.2	39.7
綜 合 收 支	3.8	12.6	17.2	19.6	△12.3